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등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9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2일 2025년 5월 9일 금요일

5·18 기념식, 대선 앞 최대 이벤트
정치권 광주 집결 '통합의 장' 된다

'오월 광주' 12·3내란 극복 원동력
한강 '소년이 온다' 노벨상의 토대
광주시장, 국회의원 300명 초청
올 45주년 행사 주말·휴일 겹치고
대선 앞 둬 최대 추모인파 몰릴 듯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 극복의 힘을 얻고, 양극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5·18 기념행사는 6·3조기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가장 큰 '정치 이벤트'로 전망된다.

특히 5월 광주의 아픔을 담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저자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과정에서도 '80년 5월 광주 정신'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5월 기념행사가 또 한번 '한국 민주주의 대전환'을 이끌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45년 만에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5·18기념행사 초대장을 보내면서 규모와 의미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3 계엄'으로 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 받으면서 지난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낀 연휴기간 동안 광주를 찾은 추모객과 관광객들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이 10년 만에 주말과 휴일이 끼면서 각종 행사에 많은 추모객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대선 주요 일정

5월 6~10일	선거인명부 작성
10~11일	후보자 등록 신청
12일	선거운동 개시
20~25일	재외투표 (오전 8시~오후 5시)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25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
26~29일	선상투표
29~30일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6월 3일	선거일 (오전 6시~오후 8시)
4일	21대 대통령 취임

연합뉴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엇보다 조기에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추모기간 광주·전남 방문 일정을 집중 배치했고, 호남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한 추가 발표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는 게 주요 일정이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호남지역에 머물렀던 추억의 공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과 왜곡을 알고 난 후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이다"고 말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 의장도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광주로 총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호남 올인'에 나서고 있고, 그 출발점을 이번 광주 5월 기념행사로 잡고 있다. 또 단일화에 애를 먹고 있는 여권은 8일 현재, 구체적인 참가 의사 발표는 없지만 개헌 목소리를 높이며 호남 구애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기념행사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희생과 용서의 대동세상'으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이 내란을 수습하고 양극단의 분열을 종식시킬 중요한 정치적 철학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광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처절하게 저항했던 5·18 광주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려놓는 시민승리와 연대의 토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광주를 찾아 18일까지 머물면서 전야제와 기념식 등에 모두 참석하는 우원식 의장은 앞서 "비상계엄을 막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광주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광주에 고마움을 표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이처럼 계엄 상황에서 1980년 5월 광주시민이 보여준 '광주 정신'이 회자되면서 22대 국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도 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 '광주정신'은 가장 중요한 정신적 무기였고, 물러설 수 없는 가치였다"면서 "45년이 지났지만 '살아 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외벽에 '아! 오월 다시만난 오월' 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재명, 17·18일 '5·18 광주'서 집중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는 17일부터 텃밭인 광주에서 집중유세에 나선다. 〈관련기사 2·3면〉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주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인 17일부터 광주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이 후보는 지역 곳곳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5·18정부기념식이 열리는 18일에는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날까지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11일 전남지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남의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유동적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유세보다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경청투어 방식으로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가 대선 정국에서 중도·보수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과의 회동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추경,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최대 50만원 지원

13조8000억 70% 7월까지 집행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70%를 석 달 내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5.15.(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민주평화대행진
5.17.(토) 16:00
광주고등학교
5·18전야제
5.17.(토) 18:00
금남로 일대
5·18기념식
5.18.(일) 10:00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일) 19:00
5·18민주광장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 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무료 (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 (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주먹밥·빵 나눔
5·18민주묘지 추모탑
두 손으로 '난형환조(희생 당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활을 상징)'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표현